세천년, 21세기 희망을 갖자
기록과 유물보존 철저히

우리는 하루 사이에 타임머신을 타고 온갖 한 세기를 뛰어넘었는가 하면, 또 다른 세천년에 도착하게 되었다.

양적인 성장을 빠르게 했던 20세기의 양계업은 이제 역사속으로 묻히고, 절약적인 성장을 이루던 선진 양계업을 영위해 가야 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은 대단한 각오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600백여년전에 널리 만들어졌던 청자제조법을 알 길이 없는 것이나, 100여년전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눈에 잡히는 기록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의 역사 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양계업의 역사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불과 지난 20세기 중 30여년의 양계 역사가 유물 보존은 키발 분명한 기록이 제대로 없다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인간은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예당초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체계화된 과거의 양계 역사가 없다는 것은 미래를 그만큼 정확히 볼 수 없는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해 온 21세기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난 20세기까지 반복해 온 과거의 구습은 버
쉽으면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정보통신, 하기아 인간은 어머니의 뷰쪽을 나와 첫 움을 옮겨 뛰면서부터 세대차를 느낀다고 표현할 만큼 변화는 빠르다 못해 잠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적응이 안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뀌게 계산함을 알리지 않는다고 싶.party 하는 양게임을 볼 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0세기초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세가지, 21세기에는 그야말로 도전의 시대이다. 과감한 경영관리 의욕이 없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좀 냉혹한 세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수집이 어렵다면 부지런히 찾아야하는 오는 인쇄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주변환경을 인감히 받아들여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 계산과 담도가가 시장에 넘쳐나는데도 출하가를 울리지 않는다 고 꾸며 있는 경영관리자는 머지않아 원시인의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모든 변화가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비하고 연구하는 지는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만고의 전기가 아닌가 한다. 첫 출발부터 회망을 가지고 21세기의 풍부한 기록과 유물보존을 통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원한다.

생산성 향상과 사양관리 연구 노력을 하는 자세가 중요

"배워서 남주라"라는 농담이 있다. 양계업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론과 실제는 물론 주변 관련 분야의 흐름까지 이해 정도가 넘어야 경영지표를 세울 수가 있다.

일부에서 양계업을 주식투자하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변수가 많다. 이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열중 아홉이 손해보고 만다는 사실을 볼 때, 이렇게 키리는 것은 양계산업발전의 결점들이 되는 일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일관하되 사업변경이나 투자 시점은 적기에 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양계업자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투자적성을 잘못 잡아 가정이 편차증가가 이런 경우도 많았다. 요즘을 바랬기 때문이다. 양계업이 당분간은 자신이 자꾸만 낮아지는 쪽으로 움직여 갈 것으로 예측이 된다. 부실이 정비되던 기격이 안정되어 다시 규모 확장이 반복될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치가 아닌가 한다.

변화는 하는데 양계인들의 관심이 적으면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사료생산 실적이 증가하고 총계가 증가하는 데에도 생산량 증가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요한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양계산업의 생산량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생산자들이 임 추를 조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라가 정확한 생산량 예측치를 공표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알아서 임추를 조절하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인들이 단합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제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자료제공자의 성실도가 가장 큰 관건이다. 다음은 분석해 내 자료를 얼마나 허리, 어느 정도가지 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 해결점 없이 어렵다는 푸념보다는 무엇이라 해결하겠느냐는 자세로 대처한다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불황을 막자
되돌이 되는 일 없게

계란과 닭고기, 병아리가 양계산물의 모두라 할 수 있다. 우선 품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예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

병아리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용적일리 다. 정부의 통계를 빌자면 많아야 1만 농가 이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수급은 예측불허 상황에 떨어 부실 부화장이 증가한 것 으로 볼 때 심각한 구조적인 모습이 내재해 있 다는 느낌이 든다.

이보다 계란과 닭고기는 수급조절이 더욱 어렵다. 소비자가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계의 경우에는 출하되는 닭이 유통업자나 계약사육에 의해 모두 도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점을 잘 활용하면 수요예측이 다소 수월해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지만 과거의 예를 통해서 보면 우선 도계장이 연간 사업계획이 담고거 소비량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어 도계장의 자체 사업계획이 육계농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왔 던제 사실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실용계 농장도 유통사상과 직거래를 하고 있어 상인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계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출하계획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배어져 있다.

이제 각 부분마다 연간 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목표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많은이 감소하면 이득을 제3자에게 돌리려는 안일한 발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시장절에서 교란의 시발점이다. 합법적 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사업환경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먹이사슬 관계 법체에 따라 그때 그때 경사가 약자에게 이득을 강요 하는 유통이 보편화 되어 있고, 양계인들도 평생 이런 점에 길들여서 오히려 상인이 요구하는데 대로 따라주는 것이 편하다고 믿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반론을 하게 된다.

앞으로 새로운는 실용계 농장이건, 유통상 인이건, 도계장이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통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양계산업이 유통의 개선 없이는 회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된 일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다. 신진 외국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유통이 정착되어 풀이없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 를 만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 여 손실이 쌓이고 있다. 즉 생산자와 상인간에 된은 마찰로 불신의 골이 쌓이고 있어 합리적 인 거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좀더 생산 자들이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영재